

# 국내 ETF 시장, 160조 돌파 눈앞 자산운용사들 '수수료 전쟁' 돌입

ETF 시장 점유율 확보 총력전  
KB운용, RISE ETF 13종 인하  
키움운용, KOSEF 200 등 2종

투자자들, 인하 경쟁 긍정적 평가  
업계, '출혈 경쟁' 우려 목소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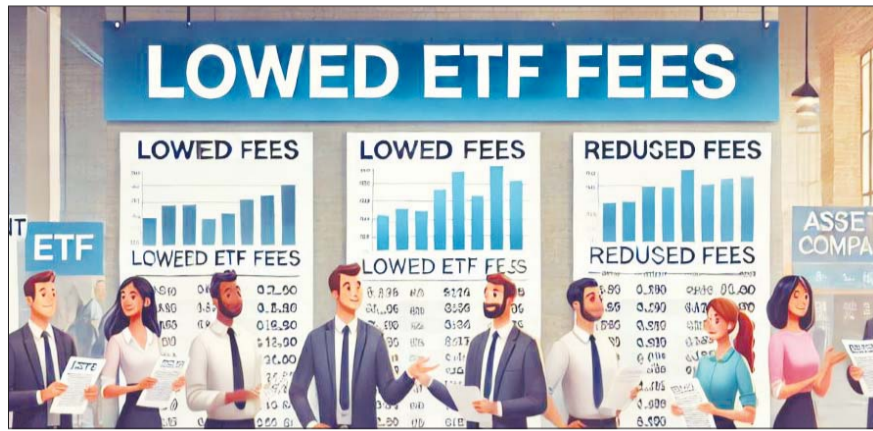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규모가 150조원을 넘어 160조원을 향해 가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시장 점유율 확보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특히 특정 ETF 운영 보수(수수료)를 내리며 자사의 ETF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투자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업계에서는 '출혈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ETF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57조 897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수치인 104조 6977억원보다 50.81% 가량 증가한 규모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ETF 시장 속에서 KB자산운용은 지난달 31일부터 'RISE ETF 13종'의 총보수를 기존 연 0.021~0.35%에서 연 0.01%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대표적으로 ▲RISE 미국S&P배당킹 ▲RISE 글로벌자산배분액티브 ▲RISE 미국반도체NYSE ▲RISE 버크셔포드폴리오TOP10 ▲RISE 미국AI 밸류체인TOP3Plus 등의 수수료를 기존 0.02~0.35%에서 0.01%로 내렸다.

같은 날 키움투자자산운용도 ▲KOS EF 200 ▲하이로즈 리츠이리지스액티브 ETF 2종의 보수를 연 0.52%에서 0.3%로, 0.13%에서 0.05%로 각각 낮췄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수수료 인하



최근 국내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TF 운영 보수를 내리는 회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Chat Gpt로 생성한 이미지

움직임은 ETF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과 2위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대결구도에서 먼저 발생했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수수료 인하를 단행한 첫 회사는 삼성자산운용으로, 지난 4월 미국S&P500%TR 등을 필두로 미국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 4종의 총보수를 연 0.05%에서 연 0.0099%로 낮췄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수수료 인하로 점유율을 확보하는 게 목적이었기 보다는 토탈리턴(TR) ETF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수수료 인하'를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TR ETF는 배당금을 분배하는 대신 자동으로 재투자해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삼성자산운용의 수수료 인하 행보를 ETF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한 공격적인 전략으로 판단한 모습이다. 이어 삼성자산운용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 미래에셋운용도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

티브(합성) ETF' 총보수를 단 0.0001% 낮춘 연 0.0098%로 인하한 바 있다.

투자자들은 이런 자산운용사들의 경쟁확산을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다. 최근 ETF를 매수한 한 투자자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를 굴리면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지수를 추종하면서 수수료가 낮은 ETF를 구매했다"며 "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 운용사들의 경쟁은 환영할 만하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은 수수료 인하 랠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이어질 거라고 전망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결국 수수료를 낮추는 건 쉬워도 다시 높이는 실현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한번 낮출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며 "모든 ETF 상품의 수수료를 낮출 수는 없고 '출혈 경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지만, 지금처럼 시장이 커지고 있을 때 점유율을 확보하는 것은 운용사들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 'SOL 조선TOP3플러스' 장단기 수익률 1위

신한운용, 1개월 19.10%, 6개월 58.36%

신한자산운용은 조선투자 집중투자하는 유일한 상품인 'SOL 조선 TOP3 플러스' ETF가 1개월, 6개월 수익률 각각 19.10%, 58.36%를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873개 상장지수펀드(ETF) 중 1위다.

김정현 신한자산운용 ETF사업본부장은 "국내 5대 조선사 중 한화오션을 제외한 4개사가 실적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연간 실적의 추정치도 큰 폭으로 상향됐다"며 "국내 조선주는 신조선가(새로 건조하는 선박의 가격)의 지속 상승과 실적 모멘텀에 더해 미국과 중국의 군비 경쟁, 트럼프 후보의 미국 내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LNG 선박 수요 증가,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 등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선업의 호황이 장기간 이어질 것

/신하은 기자

으로 전망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도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SOL 조선TOP3 플러스 ETF는 연초 이후 개인투자자가 약 1000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최근 한 달간 330억원 이상을 매수하며 160억이던 순자산 규모를 반년 만에 15배 이상 불렀다.

김 본부장은 "조선업의 호황이 이어질수록 낙수효과에 따라 배를 건조하는데 필요한 조선 기자재의 수요도 함께 증가함에 따라 조선 기자재 기업의 실적도 크게 개선되며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SOL 조선TOP3 플러스 ETF의 구성종목인 한화엔진, ST X중공업(HD현대마린엔진) 등의 선박 경쟁, 트럼프 후보의 미국 내 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따른 LNG 선박 수요 증가, 수출에 유리한 고환율 환경 등 업황 전반에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KB증권, 아프리카 가나에 지속가능 숲 생산

글렌코어·서튼지티에스 업무협약

KB증권은 글렌코어(Glencore) 및 서튼지티에스(CERTAIN GTS)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탄소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 숲 생산 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글렌코어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 최대의 종합 천연자원 회사 중 하나로 15만명이 넘는 직원 및 계약 직원들과 함께 35개 이상의 국가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에너지 수요 충족과 탈탄소화를 돕는 상품의 개발부터 제작 및 재활용, 유통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서튼지티에스는 글로벌 탄소 감축 프로젝트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이번 사업에 대한 기술역량 확보 및 글로벌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현재 아프리카 가나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한국의 에코베서스 카본크레딧과 케이씨씨티에스가 공동 투자하여 만든 합작법인이다.

KB증권은 ESG경영 실천을 위해 글로벌 기업과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글렌코어와 함께 아프리카 가나의



KB증권 본사 전경. /KB증권

탄소 감축 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고 파리협정(2020년 이후 기후 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 제6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실적(ITMO)을 인수할 예정이다. 또한, 서튼지티에스는 프로젝트의 개발자로 사업기획 및 사업관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최신 모범 사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치국인 가나와 참여국인 스위스 양자 간의 협정에서 승인된 조건에 따라 사업이 등록돼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의 개발 단계부터 사업규모와 참여국의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신하은 기자

##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흥행에 신고가 경신

metro 관심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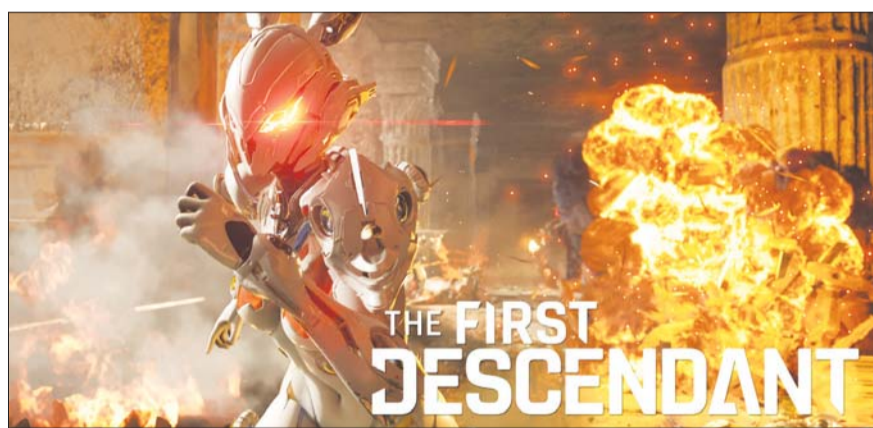
넥슨게임즈

이달 1일 전 거래일비 21% 급등  
삼성증권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신작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의 흥행 기대감에 따라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익추정치 지속적으로 상향되면서 일부 증권사들은 최근 한 달 내 목표주가를 두 차례씩 올리는 등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넥슨게임즈는 지난달에만 주가가 54.74% 상승했다. 이달 1일에도 전 거래일보다 21.01%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마지막 거래일인 2일 종가는 2만8500원이다.

삼성증권은 최근 한 달 내 넥슨게임즈의 목표주가를 두 차례 올리기도 했다. 지난달 9일 기준 1만6000원이었던 목표가를 2만8000원으로 상향했으며, 이달 2일에도 3만7000원으로 재차 조정했다. 이와 함께 2024년과 2025년 영업이익 추정치도 각각 38%, 42%씩 상



퍼스트 디센던트 게임 포스터. /넥슨

향했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최근 주가가 급했으나 이보다 빠르게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어 추가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상상은증권도 지난달 17일 넥슨게임즈의 목표주가를 2만5000원으로 상향했던 것에 이어 지난 1일에도 3만6000원으로 재조정했다. 최승호 상상증권 연구원은 "넥슨게임즈는 통련할 수 있는 기로를 닦고 있기에 지식재산권(IP) 가치 상승을 반영해야 하며, 밸류에이션 추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넥슨게임즈의 신작 '퍼스트 디센던트'

트'는 국내보다 해외, 특히 서구권에서 반응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최 연구원은 "세계 2위 시장인 중국에서 상대적으로 어렵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도 "기존과는 다른 스토리로 서구권과 일본 등을 공략하고 있는 퍼스트 디센던트의 사례는 분명 경이롭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퍼스트 디센던트 이후 대기 중인 파이프라인도 국내 최상급이라고 부연했다. 상상증권에 따르면던 전애피터 오픈월드 모바일이 내년 4분기 출시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신하은 기자 godhe@

## KB운용, 美 30년국채 ETF 월배당금 지급

퇴직연금·연금저축계좌서 100% 투자

KB자산운용의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가 월분배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는 출시 이후 7, 8월 두 번의 분배금을 확정했다. 7월 2일에는 첫 분배금으로 주당 48원(분배율 0.46%)을, 8월 2일에는 주당 42원(분배율 0.41%)을 지급했다. 미국30년국채에 투자하는 액티브ETF 중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분배율을 보였다.

지난 5월 출시된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ETF'는 미국에서 발행한 'A A+' 신용등급 장기국채 및 장기국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해 매달 이자를 받는 월배당형 상품이다. 'RISE 미국30년국채액티브 ETF'의 듀레이션(가중평균만기)은 약 20~21년 수준으로, 일반적인 미국 30년 국채 듀레이션(약 16년)보다 1.3배 더 길게 투자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리가 1% 하락할 때 채권 가격 상승폭이 기존 미국 30년 국채 대비 약 4% 더 크며, 이러한 액티브 전략을 활용해 금리 인하 시기에 상대적으로 더 큰 가격 변동을 추구할 수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하다.

/신하은 기자